

“국회 연설” 트뤼도 캐나다 총리 “한국과 모든분야서 협력 강화 준비 돼”

“기후정책이 경제정책... 중대한 시기 가장 친구” 공급망 강화·원전 등 에너지 협력 필요성 강조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에 “세계 평화 위해 함께하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7일 “캐나다는 한국과 같은 우방들과 파트너십을 핵심 부분부터 첨단기술 혁신 청정에너지 솔루션까지 모든 분야에서 강화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연설에서 “이것이 바로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몇 시간 동안 핵심 논의의 주제가 될 것”이라며 “청정경제를 건설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인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기후변화는 실질적이고 무서운 영향을 우리 삶에 미치고 있다. 유럽에 전쟁이 일어났고,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 적대 국가들이 우리의 경제 상회 의존성을 자신들의 지정학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후정책이 경제정책이고, 경

제정책이 안보정책이고, 안보정책이 곧 사회정책”이라며 “시민들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긴급히 행동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는 이런 해결책을 가장 친한 친구로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는 파트너들과 협력해 석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며 “영국과 함께 탈석탄동맹을 출범시켰다. 정부·비즈니스·기관간 연대를 통해 청정성장과 환경보호를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LNT 산업에 한국가스공사, 한국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캐나다 노스랜드 파워 등이 각각 참여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건설하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어 “캐나다와 한국은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협력했다. 한국은 원자력 에너지의 리더이고, 우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

는 계속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에 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넷제로(Net-zero·탄소중립) 세상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미래는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가득차 있다. 면서도 “우리가 공급망을 강화시키고, 같은 뜻을 가진 동맹국들이 협력하고, 전략적으로 내일의 경제에 투자한다면 우리의 근로자들과 국민들이 모두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보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평화·인권,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및 북대서양 지역의 안정은 글로벌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북한을 향해 “지속적으로 대화와 외교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나이가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맨 처음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운을 댄 트뤼도 총리는 오늘 18일이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점을 언급

하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희망의 등불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탄력적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국인의 피와 희생으로 함께 열어진 것”이라고 치켜 세웠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강성해지는 독재주의를 우려하면서 “민주주의는 결코 노력없이 지속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절정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캐나다가 100여년 전 선교사들의 교류를 시작으로 관계를 이어오면서 6·25 전쟁 참전, 양국 간 자유무역 등으로 사이가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또 부친이 총리로 재직 중 일 당시 주한캐나다대사관이 마련됐다는 사실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문화에서 60세라는 나이는 한 사이클이 끝나고 또 다른 사이클이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며 “활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모두 공통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평화, 번영, 지속가능성의 새로운 사이클에서 가장 친한 친구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캐나다 정상으로서 9년 만에 한국을 찾은 트뤼도 총리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정상 회담을 가졌다. /뉴시스

김진표 의장, 트뤼도 총리와 환담

김진표 국회의장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국회에서 만나 양국의 수교 60주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의장과 트뤼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연설 전 의장 접견실에서 30분가량 짧게 환담했다.

김 의장은 환영 인사를 전하며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설 이후 처음 있는 일어서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다”며 “올해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결의안을 발의해 채택을 추진 중에 있다”며 “캐나다 의회에서도 같은 결의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총리 방한을 계기로 함께 결의안을 추진하면 양국이 더 긴밀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뤼도 총리는 “이미 훌륭한 방문이 됐다”며 김 의장의 환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양국 수교가 이제 6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며 “이는 우리가 미래로 전환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최근 수십년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많은 것을 달성했고, 강력하고 자유롭고 참여하는 정치 사회 만들어 냈다”며 “이런 큰 성공과 기회는 단순히 한국뿐 아니라 역대 다른 국가와 전 세계 많은 국가에 굉장히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했다. /뉴시스

“5·18은 민주주의 뿌리”... 文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오월영령 참배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오월영령에 참배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5·18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됐다”며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5·18 43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헌화·분향했다. 퇴임 이후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전직 대통령으로는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이날 참배에는 부인 김경숙 여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함께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참배단 앞에서 헌화·분향한 뒤 묘지관리소 측 안내를 받아 교복 입은 시민군 문제와 열사의 묘를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 열사 묘비 앞에서 묵념한 뒤 무릎을 꿇어 묘비를 거듭 어루만졌다. 문 열사는 동성고에 1학년 재학 중이던 1980년 5월 27일 최후 항쟁의 날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복부와 목 부분 관통상을 입고 숨졌다.

문 전 대통령은 역사야문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민주항쟁에 크게 빚졌다. 우리 국민들이 오늘날 이만큼 민주주의를 누리는 것도 5·18민주항쟁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다”면서 “그래서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우리는 5·18정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5·18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됐다. 5·18을 맞아 우리 국민들이 함께 5·18민주항쟁의 미를 새기면서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 5·18 항쟁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다시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문재학 열사를 참배하고 있다.

“5·18에 빛났다... 민주주의 흔들릴 때마다 항쟁정신 생각 재임 중 헌법전문 수록 무산 안타까워... 정치권 함께 노력을”

라는 마음이다”고 소회를 전했다.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19대 대선 당시) 공약했음 뿐만 아니라 재임 중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 5·18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은 내용을 담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않아 국민 투표까지 가지 못하게 된

참배 직전 문 전 대통령은 민주이문 방명록에 “5·18민주정신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시다”라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제2민주요역, 민족민주열사 묘역까지 걸어가 고함성 전 대법원장과 이한열 열사 묘를 차례로 참배했다.

항쟁 당시 독일 제1공영방송(ARD-NDR) 일본 특파원으로 광주의 참상을 영상에 담아 전세계로 알린 유투브인 친츠펠터 추모식도 찾았다. /뉴시스

도의회, 5·18 기념일 하루 앞두고 대정부 성명 발표 “동학·5.18정신 계승하라”

“尹정부 굴욕외교, 동학농민혁명정신·3.1정신에 반해 극단적인 국정운영 쇄신 시급... 외교 참사에 사과해야”

전북도의회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정부를 향해 “동학농민혁명과 5·18정신 계승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면 수많은 선열이 목숨을 걸고 지킨 민주와 정의, 평화 인권, 자주가 흔들렸다”면서 “선열을 빛낸 면목이, 후대 앞에 당당히 나설 자신이 더욱 없어지는 5월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최근 한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굴욕외교를 벌였다”며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과거사 정리는 구시대 유물처럼 버렸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3·1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을 낭독한 영영선 전북도의회 대변인은 “무능하고 극단적인 국정운영 쇄신이 시급하다”며 “통렬한 반성을 토대로 외교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야 한다. 약자는 안전하고 강자는 정의로운 나라, 이것이 5월 정신이다”고 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7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한 후, 직원들을 격려했다.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 표준화·통합 검증체계 고도화

민주 윤준병 의원,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 설치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선택지불제의 종류에 탄소중립지불제, 가격보전지불제, 경영이양지불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



윤준병 의원은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접수·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위하여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에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지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에 선택지불제의 종류에 탄소중립지불제, 가격보전지불제, 경영이양지불제 등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안호영 의원, 이재명 대표 언론특보단장직 맡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원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당 수석대변인에 이어 이재명 당대표 언론특보단장직을 맡게 됐다.

언론특보단은 당과 언론 간 소통채널로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당의 정책수립에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도의회 환복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방문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7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전정희)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한 후,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전정희 센터장은 전북여성들의 최대 관심사인 여성정책연구소와의 통합 관련 추진 상황과 올해의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센터는 여성정책연구소와의 통합 추진 상황을 비롯해 주요 역점사업인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조성 사업과 유관기관 네트워크사업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도내 14개 시·군 여성들의 거점 역할을 하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통합 재단인 ‘전북여성가족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북여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음성 기자